



※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말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금융위원장 인사말씀

2016. 1. 8.

금 융 위 원 회

1 인사 말씀

□ 금융위 가족 여러분 !

안녕하십니까?

금융위원장 임종룡 입니다.

□ 먼저 말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

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주는 여러분에게

‘고맙습니다’라는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

□ 지난해부터 우리가 해 온 금융개혁은

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,

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

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었으며

그 첫걸음은 우리부터 먼저 바뀌는 것이었음

○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전환하기

위해 검사와 제재의 방법을 혁신하고

그림자규제를 포함하여 전 금융규제를 검토·개선하면서

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

→ 그 과정에서 정립된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

금융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해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을

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·시행하고 있음

2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의 의의

□ 금년 1.4일부터 시행된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은
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**내부 규범**을 만든 **첫 번째 사례**임

- ①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
우리 **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**을 **선진화**하는 계기이자
그 동안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**감독·규제의 성과**가
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임
- ② 그 형태도 **총리훈령**으로 규정함으로써
내부 **구속력을 강화**하고 실천의지에 대한 **시장신뢰**를 높임
- ③ 특히, **인사, 금리, 수수료** 등 금융회사의 내부경영사항에
대한 **개입금지를 명문화**한 것은
 - 금융감독기관의 **아주 오랜 관행**이자
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**내려놓겠다**는
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**약속**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
- ④ 또한, 종전에 불투명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행해진
감독행정작용에 대해서도 **통제 원칙과 절차를 마련**하여,
합리성, 투명성,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였음
- ⑤ 이와 함께 **금감원이 하는 행정지도**의 경우
금융위원회가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
우선 **금감원이 먼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관리**하게 하여
혼연일체의 정신에 맞게
금융개혁의 파트너인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

3 실천에 대한 당부

-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을 실천하는 것은
앞으로 금융개혁을 완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
- 금융현장에서는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에 대해
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음
 - 훈령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“기대”와
제대로 잘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
“의혹과 감시의 눈”도 함께 존재
 -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
금융감독기관이 확실히 바뀌어
금융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함
 - 금융권의 **변화와 혁신**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
책임의식과 법질서 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은
금융회사와 금융감독기관이 동반자로 서로 신뢰하며
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가야 가능하기 때문
 - 국무총리께서도 **총리 훈령으로 제정**하는 것을
적극 지원하시면서 제대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
 - 아울러 **금융회사도 규제나 감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만큼**
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토대로
성과주의 확산 등 금융권의 역동성을 확대해야 할 것임

4 땀은말씀

- 앞으로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 이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
엄정하게 적용해나갈 것이며
오늘 교육은 그 노력의 첫걸음임
- 최근 서베이를 보면, 금융개혁 만족도를 결정짓는
핵심요인이 “금융감독기관 실무자 행태”였음
- 이는 금융개혁 성공의 열쇠가
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함
- 우리가 금융권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
우리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
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은
이런 개혁과 변화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
-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
“금융위원회의 얼굴”이라는 생각으로
훈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길 당부드립니다
- 사랑하는 금융위 가족 여러분 !
금융개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
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